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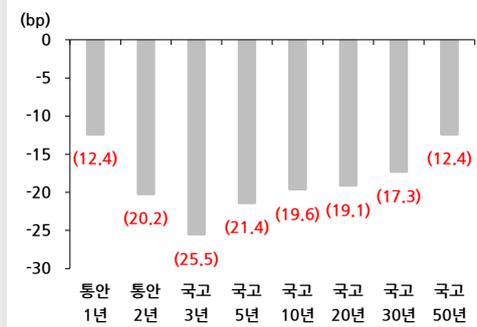
Hanwha FI Weekly

구제보다 속아내는 데 중점을 둘 연준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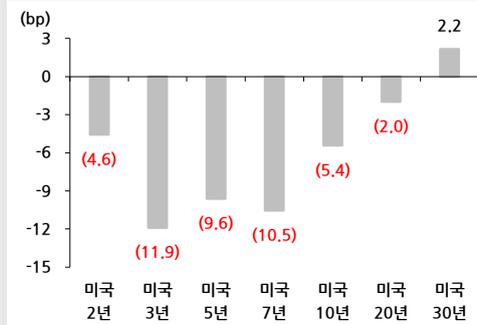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은 리스크 관리에 자신 있다

Powell 의장, Yellen 장관 모두 이번 리스크가 산업 전반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강조. 이들의 자신감은 연준 대차대조표 흐름에서 엿볼 수 있음. QT는 자금도 현재 진행형. SOMA가 보유 국공채는 전주 대비 43억달러 감소

연준 전체 자산은 8조 7,838억달러로 944억달러 증가했는데 자산 증가를 이끈 항목은 대출과 Repo. 그러나 Primary Credit은 오히려 426억달러 감소. 즉, FDIC를 빼면 총 대출은 전주 대비 9억달러 줄어든 것

Repo 자금 증가분은 모두 외국 공식기관 자금. 해외 리스크도 커지면서 관련 기관들이 연준과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자국 기관이 Repo 창구를 이용한 것은 2월 8일이 마지막

연준은 은행 산업의 'Soft Landing'을 희망. 당사는 은행 사태가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을 공산이 큰 바, 문제 은행을 도태시키고 아직도 완화적인 금융 부문을 조금 더 조일 것으로 예상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누증된 긴축 정책,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등으로 은행 업황 부담 증가는 불가피. 특히, 소형 은행은 그 영향이 큰 편. 이미 소형 은행 예금/대출 비율은 2010년 초반 수준까지 감소. 부동산 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큰 점(전체 대출의 약 65%) 등을 보면 받을 앞으로 타격이 더 클 수 있음을 짐작 가능

이번에는 연준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지 않을 것.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은 도태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들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 만큼 은행 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또한, 은행 산업의 어려움은 긴축 정책을 일부 대신할 수 있고, 부정적 경기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준의 설명. 리스크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 결심이 선 듯한 모습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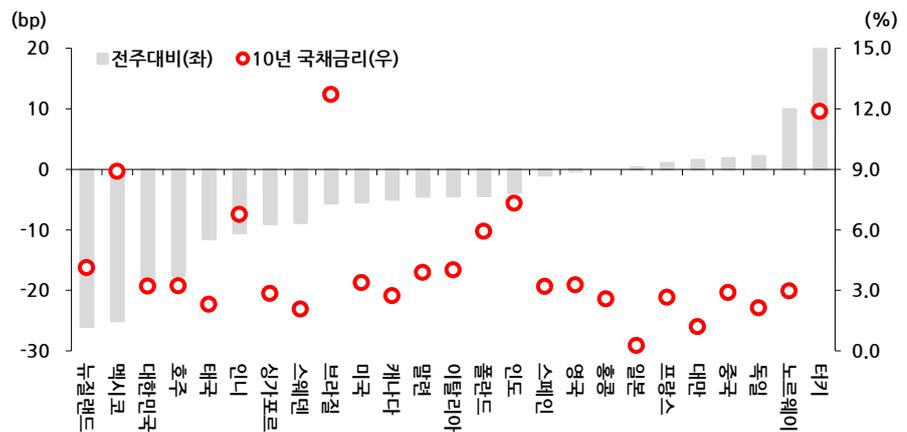
글로벌 국채 금리 하락

지난 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부분 하락했다. 연준,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강도 조절이 계속되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연준은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지만 인상 종료는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영란은행도 물가 둔화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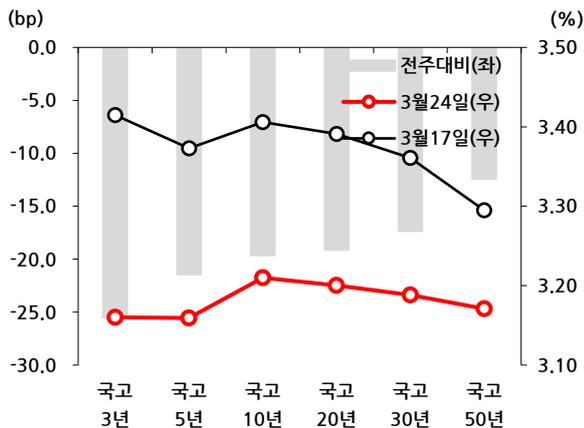
국고채 금리도 하락했다. 특별한 내부 이슈는 부재했으나 예상에 부합한 FOMC 회의 결과와 이로 인한 대외 금리 하락세에 연동되면서 전 주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다. 국고 3,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25.5bp, 19.6bp 하락한 3.16%, 3.21%를 기록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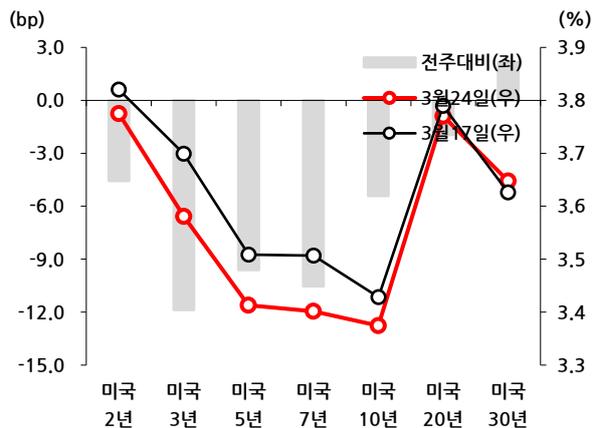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채권시장 전망

FOMC, 25bp 금리 인상

연준은 목직했다. 일련의 사태에 동요하지 않았고,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25bp 인상, 5.00%로 결정되었다. Powell 의장은 개별 은행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순위임을 금번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한, 금융 안정을 언급하면서 연준도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공격적 인상도, 인하도
어려워진 연준

향후 기준금리 흐름은 성명서, 기자회견, SEP 모두 변동에 제약이 있을 것임을 지지한다. 최근까지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5.50% 이상 기준금리 도달도, 일각에서 기대하는 연내 인하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명서는 머지 않은
인상 종료 암시

성명서 문구 변화를 보면, 은행 리스크 관련 문단이 추가되었다. 전반적인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지만 이번 사태가 신용 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인상 지속'에서 '약간의 추가 조정'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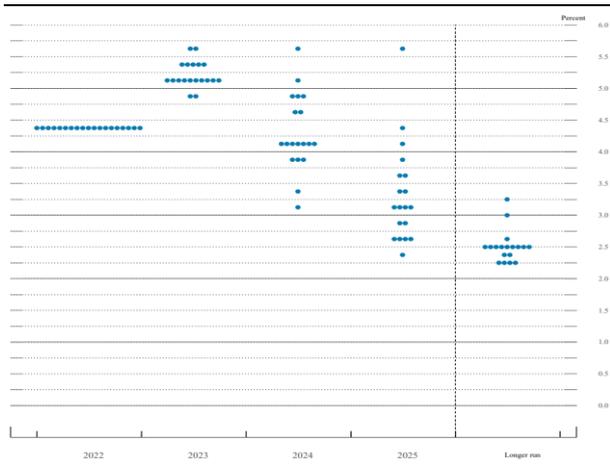
은행 사태
= 손 안대고 코 풀기

Powell 의장은 최근 은행 사태는 연준의 기축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 더해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을 경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만을 외치던 연준이 금융환경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점도표 중간값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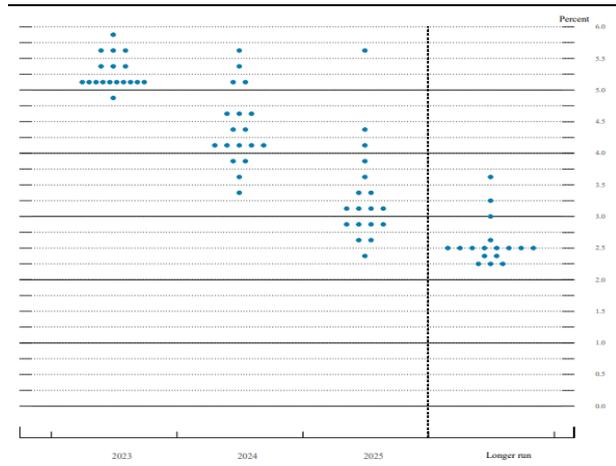
은행 사태 전까지만 해도 상향 조정이 유력했던 2023년 점도표 중간값은 이전 값(5.125%)이 유지되었다. 인상 관련 문구 수정, 향후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고 최근 은행 리스크는 긴축 정책의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는 기자회견, 유지된 점도표 중간값은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4] 12월 점도표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3월 점도표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p>인하 기대감도 강하게 경계</p>	<p>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종료가 가까워진 반면, 연내 인하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역시 성명서, 기자회견, SEP에 나와있다. ‘물가가 매우 높고, 2%대 물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서 문구는 유지되었다.</p>
<p>연내 인하는 ‘definitely not’</p>	<p>연내 인하를 묻는 질문에 Powell 의장은 ‘definitely not’이라고 답변했다. 모호한 단어들이 많아진 금번 회의에서 가장 푹부러진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SEP의 PCE 전망치는 이번에도 상향 조정되었다.</p>
<p>점도표 중간값과 별개로 전반적인 레벨은 상향 조정</p>	<p>기준금리 점도표 중간값은 유지되었지만 가장 낮은 기준금리 전망은 4.875%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가장 높은 전망은 5.625% 2명에서 5.875% 1명으로 높아졌다. 연말과 달리 2024년 말 중간값은 4.375%로 12월 대비 25bp 상향 조정되었다.</p>
<p>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연준</p>	<p>이번 회의는 연준이 스스로 그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판단이다. 추가 긴축 강화도 어렵겠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도 다시 한번 낮췄다. 당사 기존 전망(5월 마지막 25bp 인상, Terminal Rate 5.25%, 연내 인하 없음)도 유지한다.</p>

[표1] 성명서 주요 문구 변화

구분	2월	3월
경제	Recent indicators point to modest growth in spending and production. Job gains have been robust in recent months,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low. Inflation has eased somewhat but remains elevated. (건조한 고용 환경, 낮은 실업률 지속, 물가 상승률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수준 유지)	Recent indicators point to modest growth in spending and production. Job gains have picked up in recent months and are running at a robust pace; the unemployment rate has remained low. Inflation remains elevated. (고용자 수 증가세 반등, 낮은 실업률 지속, 물가는 높은 수준 유지)
은행 리스크	-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Recent developments are likely to result in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to weigh on economic activity, hiring, and inflation. The extent of these effects is uncertain. The Committee remains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 최근 사태로 인해 신용환경 긴축,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
대외환경	Russia's war against Ukraine is causing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hardship and is contributing to elevated global uncertainty. The Committee is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우크라이나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 초래. 이로 인한 물가 영향 주시 중)	(삭제)
정책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4-1/2 to 4-3/4 percent. (기준금리 4.50%에서 4.75%로 인상)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기준금리 인상 이어갈 것)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to 4-3/4 to 5 percent. The Committee will closely monitor incoming information and assess the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기준금리 4.75%에서 5.00%로 인상.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화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 The Committee anticipates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약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있을 것)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은행의 'Soft Landing'

지난 주 연준을 비롯, 미국 동향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연준은 은행 산업의 'Soft Landing'을 원한다. 당사는 은행 사태가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을 공산이 큰 바, 문제 은행을 도태시키고 아직도 완전적인 금융 부문을 조금 더 조일 것으로 예상한다.

리스크 제어 자신감 속 QT도 계속 진행

Powell 의장, Yellen 장관은 이번 리스크가 개별 은행에 국한될 뿐 산업 전반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자신감은 연준 대차대조표 흐름에서 나타난다. QE 재가동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QT 역시 중단되지 않았다. 3월 22일 기준 SOMA가 보유한 국공채(MBS 포함)는 7조 8,336억달러로 전주 대비 43억달러 감소했다.

연준 자산은 대출과 Repo 중심으로 증가

연준의 전체 자산은 8조 7,838억달러로 944억달러 증가했는데 자산 증가를 이끈 항목은 대출과 Repo다. 대출은 3,542억달러로 360억달러 늘어났다. 너도나도 대출 창구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이번 대출 증가는 기타 신용 연장(Other Credit Extension, +370억달러)과 신설된 BTFP(+417억달러)가 주도했다.

실질적인 대출 금액은 감소했다고 봐도 무방

이 중 신용 연장은 SVB 자산이 FDIC 관리 자산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수적이다. 일반적인 대출 창구인 Primary Credit은 오히려 426억달러 감소한 1,102억달러를 기록했다. 즉, FDIC를 빼면 총 대출은 전주 대비 9억달러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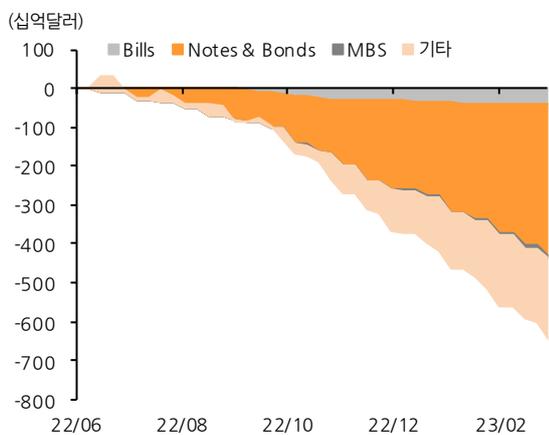
Repo 자금은 해외 기관 때문에 증가

Repo 자금 증가분은 모두 외국 공식기관(600억달러, 2005년 이후 최대 규모 유입)이다. 해외(미국 입장에서) 리스크도 커지면서 관련 기관들이 연준과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국 기관이 Repo 창구를 이용한 것은 2월 8일이 마지막이다.

문제 지역 은행들이 오히려 타 지역에 자금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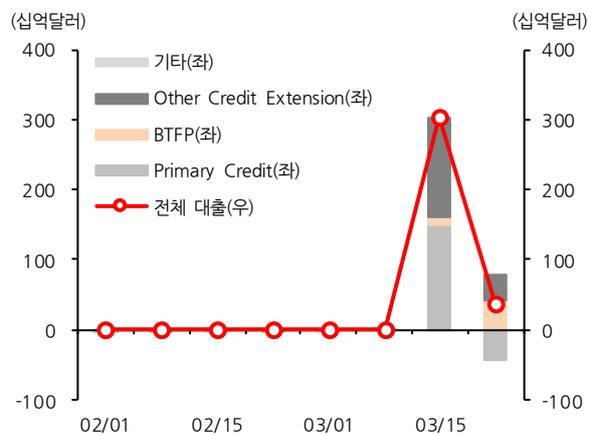
은행 사태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음은 지역 연은 간 자금 융통(ISA, Interdistrict Settlement Account)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문제 은행들(SVB, First Republic)이 소재한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오히려 다른 지역 은행들에게 가장 많은 자금을 2주 연속 공급 중이다. 파산한 Signature 은행을 관할하는 시카고 연은도 소량이나마 자금을 공급했다. 문제 지역 연은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음에 대한 방증이다.

[그림6] 일련의 사태에도 연준 QT는 진행 중



자료: New York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금융기관 대출 창구 이용 금액도 크게 줄어들었음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일부 소형 은행
파산은 불가피

큰 틀에서는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누증된 긴축 정책, 장단기 금리 차 역전 등은 은행 업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형 은행은 그 영향이 크다. 이미 소형 은행 예금/대출 비율은 2010년 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부동산 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큰 점(전체 대출의 약 65%) 등도 보면 받을 앞으로 타격이 더 클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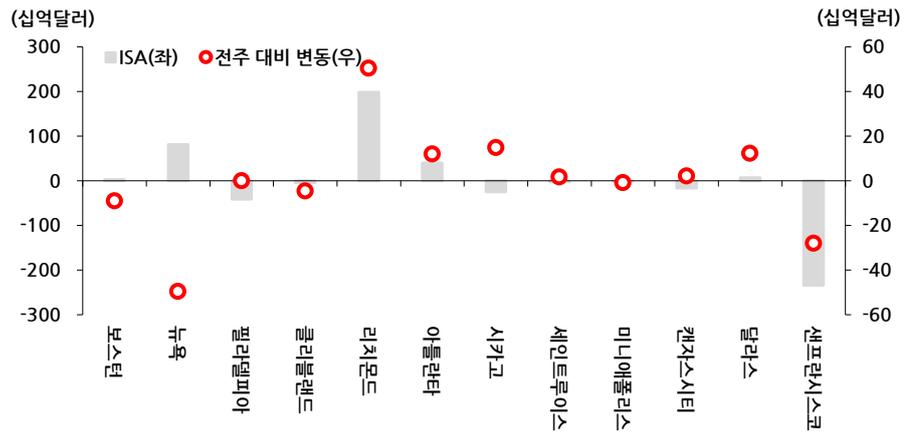
이 참에 숨어내고,

이번에는 연준이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은행은 도태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들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판단이 선 만큼 은행 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기 제어 용도로
활용할 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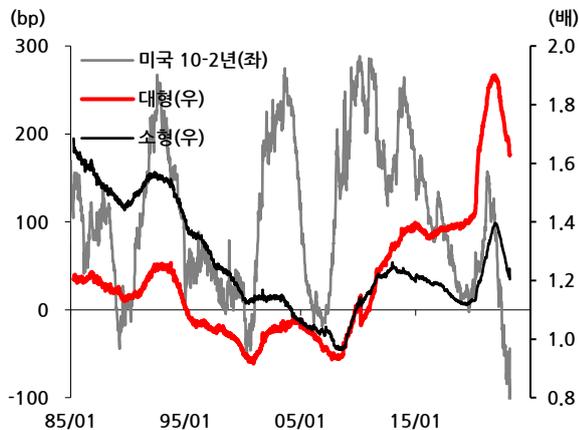
또한, 은행 산업의 어려움은 긴축 정책을 일부 대신할 수 있고, 부정적 경기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준의 설명이다. 리스크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할 결심이 선 것 같다.

[그림8] 각 지역 연은 ISA 자금 유출입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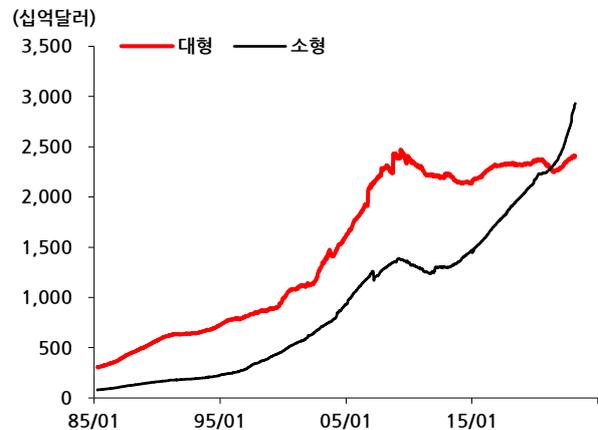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미국 장단기 금리 차, 은행별 예금/대출 비율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은행별 부동산 대출 규모 추이



자료: the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3/22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물가 상승 악순환('tit-for-tat dynamic' between companies and workers)을 걱정해야 할 때 - 최근 기업들의 차입 비용 증가는 금리 인상 효과의 시작일 뿐. 물가가 높다면 더욱 제약적인 수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 - 인플레이션 외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재. 이는 ECB로 하여금 일관되고 명확한 긴축정책 운영이 필요함을 의미
3/22	Philip Lane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은행 사태 관련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 - ECB에서 가정하는 tail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
3/23	Jerome Powell (연준 의장)	중립,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은행 시스템은 견조하고 회복력 보유.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 예금 금액은 전액 보호될 것. 필요 시 모든 수단 이용할 준비도 되어있음 - 은행 리스크로 인해 신용 여건은 타이트해질 것. 이것은 연준의 긴축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 이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적어질 수 있음을 시사 - 은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정책 도구 보유 중이며 이 도구들은 작용 중. 시중 은행들은 인상된 기준금리에 적응 가능 - 상품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진입이 맞음. 주거 부문을 포함한 상당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금번 은행 사태는 은행 산업의 광범위한 문제가 아님. Outlier들의 문제일 뿐 - 모든 구성원들은 현재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물가가 2%대에 복귀할 때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 -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 부각에 주의할 것 - 상황에 따라 5월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충분히 가능.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머지 않았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언제든지 추가 인상 가능 - 은행 사태로 인한 경제 연착륙 논의는 시기상조 - 심각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은 약 6개 정도 - 자산 축소 정책 변경 논의는 없었음 -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Base Scenario 아님
3/23	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은행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 전보다 훨씬 견조 - 지금까지 정책위원들은 금융안정-물가안정 상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 경제 성장률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 내리지 않을 것 - 민간 부문 임금 상승률 둔화 예상. 물가 둔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 - 필요 시 긴축 강도 재 강화할 것
3/23 3/24	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보장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not considering providing 'blanket insurance' for banking deposit) - 예금 보장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가능. 시스템 리스크 판단 여부는 case by case로 당국에서 결정 - 이번 사태는 은행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 - 당국은 리스크 확산 대응 관련 충분한 정책 도구 보유. 필요 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3/24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FOMC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 - 그러나 연준은 은행 시스템이 견건하고 견조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 일부 구성원들은 FOMC 전 금리를 동결하고 SVB 사태 전개를 지켜보자고 주장했으나 동결하기엔 물가가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
3/24	Christine Lagarde (ECB 총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은행들은 풍부한 유동성과 충분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회복력 보유 - ECB도 필요 시 유동성 제공이 가능하고 준비되어 있음
3/24	James Bullard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매파,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스트레스 증가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거시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 - SVB 사태는 유별난 상황(quirky situation). 당국은 이번 사태를 처리할 수단 보유 - 최근 금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거시 건전성 정책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 -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고 1분기 실물 경제 지표는 예상 대비 견조. 지속적인 긴축 정책이 필요
3/25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중립,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시스템 혼란에도 물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 - 본인이 드는 의문은 정말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할 정도로 금융 위기가 컸는가 여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은행 시스템은 안정되었다고 판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27	28	29	30	31
<p>(한국) 5년 국고채 입찰(2 조 2,000 억원) 2월 소매판매 (전월비: 0.4%, 전년비: 7.8%)</p> <p>(미국) 3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 (전월: -13.5, 전년: 7.8)</p> <p>(유로존) 2월 M3 통화공급 (전월비: 0.2%, 전년비: 3.5%)</p> <p>(중국) 2월 공업이익 (YTD 전년비: -4%)</p>	<p>Schnabel ECB 집행위원 연설 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p> <p>(한국) 20년 국고채 입찰(1 조 1,000 억원)</p> <p>(미국) 2년 국채 입찰 (4.67%, 간접: 62.0%, 응찰: 2.61 배)</p> <p>1월 FHFA 주택 가격 지수 (전월비: -0.1%, 전년비: 6.6%)</p> <p>1월 Case Shiller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전월비: -0.51%, 4.65%)</p> <p>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전월: 102.9, 전년: 107.6)</p> <p>3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 (예상: -8.0, 전월: -16.0, 전년: 11.0)</p>	<p>(한국) 3월 CSI 향후 경기 전망 (전월: 90.2, 전년: 103.5)</p> <p>(미국) 5년 국채 입찰 (4.11%, 간접: 69.9%, 응찰: 2.48 배)</p> <p>2월 미결주채 판매 (예상(m): -2.3%, 전월비: 8.1%, 전년비: -22.4%)</p> <p>(일본) 일본은행 국채 매입</p>	<p>(한국) 3월 제조업 BSI 업황 전망 (전월: 66.0, 전년: 93.0)</p> <p>(미국) 7년 국채 입찰 (4.06%, 간접: 65.5%, 응찰: 2.49 배)</p> <p>4분기 GDP(잠정치) (전기비연율: 2.7%)</p>	<p>Bar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Lagarde ECB 총재 연설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p> <p>(한국) 2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2.9%, 전년비: -12.7%)</p> <p>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 -0.3, 전년: -0.2)</p> <p>3월 수출입(4/1) (수출 전월비: 8.3%, 전년비: -7.5%) (수입 전월비: -6.0%, 전년비: 3.6%)</p> <p>(미국) 2월 PCE, Core PCE (전월비 예상 PCE: 0.4%, Core: 0.4%) (PCE 전월비: 0.6%, 전년비: 5.4%) (Core 전월비: 0.6%, 전년비: 4.7%)</p> <p>3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예상: 63.4, 전월: 63.4, 전년: 65.2)</p> <p>(유로존) 3월 CPI, Core CPI(잠정치) (CPI 전월비: 0.8%, 전년비: 8.5%) (Core 전월비: 0.8%, 전년비: 5.6%)</p> <p>(중국) 3월 제조업 PMI (전월: 52.6, 전년: 49.5)</p>
3	4	5	6	7
<p>(한국) 3월 수출입(4/1) (수출 전월비: 8.0%, 전년비: -7.5%) (수입 전월비: -6.0%, 전년비: 3.6%)</p> <p>(미국) 3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 47.7, 전월: 47.7, 전년: 57.0)</p>	<p>호주 RBA 통화정책회의</p> <p>(한국) 3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3%, 전년비: 4.8%) (Core 전월비: 0.3%, 전년비: 4.8%)</p> <p>(미국) 2월 공장수주 (전월비: -1.6%, 전년비: 4.3%)</p> <p>2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4.5%, 전년비: 3.1%)</p> <p>(유로존) 2월 PPI (전월비: -2.8%, 전년비: 15.0%)</p>	<p>뉴질랜드 RBNZ 통화정책회의 Lowie RBA 총재 연설</p>	<p>(한국) 2월 경상수지 (전월: -45.2 억달러, 전년: 58.7 억달러)</p>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ECB는 당월)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